



7면

익산시, 제3·4산단 가동률 80% '돌파'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음 1월 28일) 제2968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농정의 미래 청년농업인들이 설계

도, 올해 4개 분야 23개 사업에 312억원 투자

전북도가 농업·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성장 주체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4개 분야 23개 사업에 312억 원을 투자한다.

도내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2020년 통계청 기준 1,431농가로써 전체 농가주(93,319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써 전국 평균 1.2% 보다 높다. 전국 9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대비 청년농업인 농가 감소율은 9개 시·도 중 제일낮은(△54.1%/ 전국 △61.3%)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민선 6기(2014년 이후)부터 도정 제정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 등 농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청년들이 우리 도에서 농업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보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영농 창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청년농업인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해 성장 단계별(진입, 정착, 성장) 체계적 지원으로 청년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영농 창업 역량

등을 강화해 청년농업인 5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농업인들을 농정분야 도정자문 및 다양한 시책 발굴에 참여시켜 지역농촌 발전의 혁신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청년농업인 거버넌스 '삼락농정(三樂農情)'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진입단계 = 신규(예비) 청년 대상 농업 분야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9개 사업에 62억 원을 투자한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3개소, 15억원)과 경영실습임대농장(2개소, 9억원)을 신규로 조성는 한편,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을 위해 스마트관 청년창업보육교육(150명, 20억원), 시설원에 첨단기술 교육(28개과정, 1억원) 등을 추진한다.

▲정착단계 = 자금·네트워크·영농기반·역량강화 등 패키지 지원으로 11개사업에 242억원을 투자한다.

청년농업인(1,183명)에게 영농정착금 월 80~100만원씩을 지원하고, 후계농육성자금 3억원(용자), 청년농 정책자금 이차보전(80명, 2억원)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57

개, 1억원)에 학습,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고, 청년농 영농기반 입차지원(50명, 4억원), 청년희망 스마트관 확산지원(44동, 14억원),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20ha, 112억원) 등을 지원한다.

▲성장단계 = 선도 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컨설팅 등 지원을 위한 성장단계에 2개 사업 8억 원을 투자한다.

청년농업인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담은 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6개소, 3억원)과 농업경영체 컨설팅사업(25개소, 5억 원)을 지원한다.

▲거버넌스 = 청년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제(혁신 방향)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거버넌스 '삼락농정(三樂農情)'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청년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역동적인 청년농업인 거버넌스 '삼락농정(三樂農情)'을 운영해 청년들이 행정청과 소통하고, 협치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 송하진 도지사와 송상재 노조위원장 등 노사 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단체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진행했다.

노사 상생 新비전 제시 | 전북도-도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첫 상견례 후생복지·인사조직 등 상생 표본 만들기로

전북도와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노조')가 송하진 도지사와 송상재 노조위원장 등 노사 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단체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진행했다.

전북노조는 이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22년 4월 7일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 3일 전북노조에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를 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2006년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된 이후 여섯 번째 단체교섭으로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

원이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기본협정서에 서명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전북노조에서 제출한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노조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조합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총 123개 조항으로, ▲균형 있는 인사조직,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후생복지, ▲도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등 25개 사항이 담겨있다.

송상재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복지와 권익향상, 직원 누구나 자긍심을

느끼며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면서 "전북도와 전북노조의 단체교섭이 소통과 협의, 상호이해와 존중이 우선돼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도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노조는 도정의 소중한 동반자로서 상호존중의 원칙으로 대립 관계가 아닌 소통하는 노사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시대흐름에 맞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으로, 공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

신규채용 250여명 규모... 내달 9일까지 경진원서 신청 접수

월 200만원 이상 임금 보장·2년 이상 근속시 최대 1000만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3월 9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고용기업에는 1인당 16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촉진사업이다. 기업에는 인력수급을 돕는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자에게는 일자리 마련과 장기근속 유도, 지역정착을 거두기 위해서다.

모집 인원은 전주 90명 등 총 250여 명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초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등 분야의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한다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여하는 청년은 2년간 인건비 월

200만 원 이상 임금보장, 2년 이상 근속시 최대 1,000만원(분기별 25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된다.

도는 3월 9일까지 참여 청년 모집 후, 14일 참여청년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 중순부터 본격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접수는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일자리 대표메일(wak-young@jba.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유호상 기자

3월 1일 공휴일 관계로
신문은 3월 3일 발행합니다.

시민에 혜택... 상공인에겐 기쁨...

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출시

중개수수료와 가입비, 광고료가 없는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시작된다. 전주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돕고 지역에 깊숙이 자리 잡은 대형 민간 배달앱 플랫폼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이 2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전주맛배달 앱은 중개수수료와 가입비 광고료 등이 없고, 지역화폐를 활용해 온라인 결제 시 페이백 혜택도 유지돼 그간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에 부담을 느꼈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와 아이폰 애플스토어 등에서 전주맛배달을 검색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전주맛배달 앱 서비스 개시에 발맞춰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주맛배달 가입에 따른 쿠폰과 매일 배달료 할인 쿠폰을 제공기로 했다. 또, 초기 가입자 유입을 위해 전주맛배달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경품



이벤트 등을 추진한다. 전주맛배달에는 현재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한 전주지역 200여 곳이 가맹점으로 가입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가맹점을 4,000곳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